

[실천+] '피조물 보호'를 위한 준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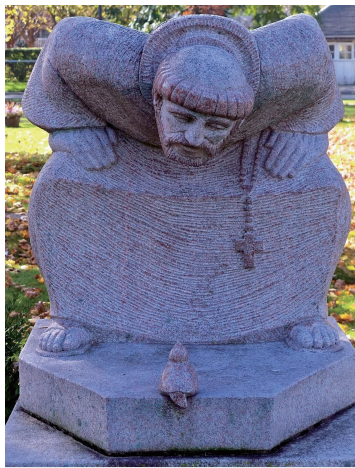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특집
회칙『찬미받으소서』에서 찾아본 “피조물 보호에 앞선 준비 자세”

수영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이 필요하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9월 1일)을 맞아 '생태 영성'의 바다에 풍당 빠지기 전, 준비운동을 하실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회칙『찬미받으소서』(이하 회칙)에서 찾은 '기도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자세'. 자칫 단편적인 접근이 될 수 있으니 회칙 전문의 일독을 권합니다.

■ 준비운동 ① : 시선은 아래로!

꽃과 새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자연을 비롯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대하는 자세. 그 모범은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성인께서는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습니다. 피조물과 대화하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도 하셨죠.



새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묘사한 동상
(God's Fool, 미국 일리노이주 '성 베드로와 바오로' 묘지(內))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우매와 아름다움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 욕구를 지배하지 못하는 무자비한 착취자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낀다면 냉철함과 배려가 곧바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빈과 겸소는 곧 현실을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칙 제111항 참조].

■ 준비운동 ② : 가슴은 활짝 펴고!

보편적 친교로 마음을 열자

꽃과 새를 살피는 연습을 마쳤다면, 다음 준비운동은 눈을 들어 우리 곁의 소외된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생태 환경 문제에 나서려는데 인간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라니 의아하시죠?

보편적 친교에 마음을 열면, 이러한 형제애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잔혹함은 언제나 어느 모로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회칙 제92항 참조].

쉽게 구매해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문화와 주위를 볼 새 없는 속도 주의·무한 경쟁에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해지고 사람과 자원을 쓸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지요.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서 '환경'만을 따로 떼어 논의하지 않고 전체적 방향과 의미, 가치를 치열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마치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서 훔쳐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회칙 제50항].

■ 준비운동 ③ : 발걸음은 사뿐사뿐

마음을 바꾸자

가벼워지기, 마지막 준비운동입니다. '평화' 속에서 '절제'를 실천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세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셨지요.

우리는 회개, 곧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회칙 제218항].

힘에 부친다면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하면 됩니다. 우리 교구 '환경사목위원회'(위원장 백종연 신부, www.ecocatholic.org)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생태영성학교'(17일 개강), '기독교에코포럼'(18일)과 같은 교육 활동을 비롯하여 본당 환경분과와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뱃'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생태적 삶을 돕고 있죠.

일상의 작은 몸짓들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회적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돌봄의 문화가 온 사회에 스며들도록 장려합니다[회칙 제231항 참조].

낮은 시선, 열린 마음, 회개의 준비로 모두가 생태 영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회칙 제240항) 잊지 마세요!

서동경 안나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